

SU-ACE+사업 웹소식지

2019 Vol.1



삼육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단



SU-ACE+사업 웹소식지

2019 Vol.1



CONTENTS

MVP 혁신교수법

1 - 2

- MVP 혁신교수법 소개
- MVP 혁신교수법 수업 진행 교수 인터뷰



ACE+ 사업 내 학습공동체

3 - 5

- 학습공동체 프로그램 소개
- 담당자 인터뷰
- 참여자 후기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7 - 9

-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소개
- 담당자 인터뷰
- 참여자 후기

01. MVP 혁신교수법



(MVP 혁신교수법 특강모습)

우리 대학에서는 교수와 학생의 역량을 극대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지난 2017년 MVP 혁신교수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도입했다.

MVP 혁신교수법을 진행하는 교수의 사전 교육은 ‘플립드 러닝’,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 ‘학생상담’, ‘티칭포트폴리오 작성’ 등 네 종류로 이루어진다.

플립드 러닝

플립드 러닝이란 블렌디드 러닝(BLENDED LEARNING)의 한 형태로서, 수업시간 전에 교수자가 제공한 온라인 영상 등의 각종 자료들을 학생이 미리 학습하고 강의실에서는 **과제 풀이나 토론** 등이 이루어지는 수업방식을 말한다. 플립드 러닝은 학습자가 진도를 조절하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고 학습자 중심의 보다 심화된 배움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

학습자 중심의 교수방법이란 수업의 중심이 교수가 아닌, 학습을 하는 사람의 배움이 중심이 되는 학습을 말한다. 이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스스로 사고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사유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학생 상담

상담 과정이란 교수와 학생간의 교과목에 대한 개별상담과 집단상담을 포함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교과목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이 가능하며 교수는 학생들의 수업 이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티칭포트폴리오 작성

티칭포트폴리오는 교수역량향상을 위한 보고서로 수업의 준비 과정과, 학생들의 만족도 등을 포함하여 수업의 전체적인 흐름과 이에 대한 교수의 피드백을 담고 있다.

01-1. MVP 혁신교수법 인터뷰

Q. MVP 혁신교수법을 진행하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A. 제가 만든 수업들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한 인문학 수업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전에 수업을 진행할 때에도 학생들의 생각하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업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학교에서 이전의 수업방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천하였고, 그것이 MVP 혁신교수법이었습니다.

Q. MVP 혁신교수법을 내년에도 계속 진행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A. MVP 혁신교수법 진행에 보고서 작성 등 여러 절차가 따르지만 저는 지루한 학습과 수동적 학습을 원하지 않고 학생들이 주체적인 학습참여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한국글로벌 학과의 모든 전공수업은 MVP 혁신교수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저의 수업에서도 MVP 혁신교수법을 계속 진행할 생각입니다.



글로벌한국학과

김봉근 교수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주체적인 학습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삼육대 학생들이 삶의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을 호기심과 집요함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스스로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기르면 좋겠습니다.

02. ACE+사업 내 학습공동체

우리 학교 교육혁신단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학습공동체'라는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오는 1월 말까지 진행한다.

학습공동체는 학생들의 그룹 활동과 팀 작업에 대한 숙련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으며, 학생들은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다과와 활동 이후 장학금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제출된 보고서가 미흡한 경우 장학금이 차감될 수 있다.)

활동내용

이곳에서 진행되는 활동은 논문게재를 위한 LINC II 연구과제, 공모전 및 경진대회 준비, 자격증 취득을 위한 스터디가 해당된다.

이 공동체의 경우엔, 각 팀마다 공동체가 원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결과물의 산출 시기도 다르다. 그렇기에 만약 학습공동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한 이후,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 제출이 이뤄져 운영이 완료되었다면 새로운 목적의 학습공동체를 신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인원이 변함없이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 50%이상의 인원이 변동되어야 한다.

최소 5회 이상의 모임과 총 10시간 이상의 학습 결과를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양식에 따라 일지를 작성해야 활동이 인정된다.

02-1. 학습공동체 담당자 인터뷰



교육혁신단
이우성 연구원

Q.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다니엘관 5층 508호에 위치한 교육혁신단에서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학습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 대학에서 요구하는 6대 역량에서 학습과 관련된 창의적 사고나 자기주도 능력,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Q.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학습공동체가 만들어진 계기는, 사회에서 점차 개별 작업이 아닌 팀프로젝트나 공동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작업들을 요구하기에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학습공동체는 학생들에게 그룹 활동과 팀 작업에 대한 숙련도를 높여 공동체적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더욱 당당하게 행동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능력이 뛰어난 편인데도 불구하고 어디에 과감 입고 가기를 부끄러워하고 기죽어하고 당당하게 행동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더욱 자신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실력으로 승부했으면 좋겠어요.

02-2. 참여자 후기



학습공동체 평화로운 아이들 팀

이번 학교에서 진행한 학습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며 우리 팀은 학습과 팀 활동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우리 팀의 대부분은 학기 중에 학습과 일을 병행하기에, 따로 시간을 내어 팀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그런데 학교에서 학생 자율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어 시간적으로 부담되지 않게 활동할 수 있었다.

동아리나 캠페인의 경우엔 활동 목적이 학업과는 거리가 먼 편이라서, 활동에 치중하다 보면 학업에 소홀해지는 일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들이 진행한 공동체의 활동 목적은 학업이다 보니 시험 대비나 수업 준비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공동체 활동에서 발표 수업이나 수업 피드백, 과제 피드백 등등의 활동을 구성하며, 학습도 팀을 통해 이뤄질 때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오히려 개인으로 학습할 때보다 집단 지성을 이용해 폭넓고 자세한 지식을 얻을 수 있었으며, 나아가 소통과 피드백을 통해 개인의 학습 수준을 보다 현실적이고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었다.

03.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삼육대학교 스미스학부대학이 재학생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를 위한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공모전 중, 독서 편지쓰기’라는 ACE+ 비교과 프로그램을 지난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 진행했다.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독서 편지쓰기’는 <삼육도서 100선> 중 자신이 원하는 도서를 읽고, 책 내용을 토대로 저자 혹은 책 속 인물, 친구, 가족 등에게 편지를 쓰는 프로그램이다. 평소 친구, 가족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책의 내용을 토대로 전하거나, 대화가 적은 현대사회에서 깊은 마음 속 이야기들을 써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장학금은 신청되어진 응모작들 중에 대상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선정하여 각 상마다 장학금 50만원, 40만원, 30만원 순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다만, 심사기준 및 완성도 불충족 시 수상자가 없을 수 있다는 점과, 모방된 작품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 제출된 작품은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삼육도서 100선

<삼육도서 100선>에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분야의 책 100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 수준 높은 책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책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이라면 쉽게 도전하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학교생활과 다양한 이유로 바빠 책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한 번 읽을 때 더 의미 있고,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한 책들이라 생각된다.

03-1. 삼육도서 100선 프로젝트 담당자 인터뷰



스미스학부대학 장종진 연구원

Q. '독서 편지쓰기'가 만들어진 배경과 목표는 무엇인가요?

A. 학생들이 쉽게 도전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정 학과의 치우침 없이 모든 학과생들에게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고, 비슷한 시점에 진행되는 프로그램과 차별화되는 프로그램을 생각하다보니 '편지'라는 매체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Q. 자신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저는 바울관 106호에 위치한 스미스학부대학의 장종진 연구원입니다. 스미스학부대학은 학생들의 역량강화와 더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교양교육, 비교과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Q.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이 있으신가요?

A. 저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바쁘고 여유가 없어 책을 소홀히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일상 속의 여러 시간들을 잘 활용해서 책을 자주 접해보길 권해 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구원들은 학생들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03-2. 참여자 후기



상심14 전민석, 상심17 유하영

이번 스미스학부대학에서 주최한 삼육 도서 100선 편지 쓰기 공모전에 참여하며,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과 책의 감동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우리는 상담심리학과 학부생으로서 주로 전공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하기 위해 심리학적 이론과 관련된 책을 위주로 독서를 했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하나의 분야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도서를 접해보고 싶어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프로그램을 접하고, 우리들은 호기롭게 '총 균 쇠'라는 책을 선택하여 활동을 시작했다. 활동을 진행하면서 우리들은 종종 난관에 봉착하기도 했는데, 그 이유는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그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타당한가에 대해 판단해야 했기 때문이다.

책은 저자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들로 전개되기 때문에, 우리는 책을 읽으며 이 근거들이 "저자가 자신의 주장을 위해 주관적으로 조작한 것이 아닐까?" 하는 고민을 여러 차례 했다.

그런데 그 고민 덕에 책을 더욱 비판적이고 객관적으로 읽을 수 있었고, 더 나아가 책의 내용을 통해 사고의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다.